**아시아나IDT 면접 답변 준비**

Q. 간단한 자기소개

*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자 ‘악녀’ 백승찬 입니다.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악녀’라고 불립니다. 악하지도 않고, 남자인 제가 ‘악녀’라고 불리는 이유는 ‘악바리 같은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서 12번의 사업 제안에 도전했고, 11번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 1번의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바리 근성을 통해 아시아나IDT에서도 맡은바 업무를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Q. 자신의 장∙단점

* 먼저 저의 장점은 적극성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인지치료와 관련한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였었습니다. 인지치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지치료 방법을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나온 자료만을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 박사님을 직접 컨택하여 직접 연구소에 방문하였고, 박사님이 연구하신 인지치료 관련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콘텐츠 개발에 활용하였습니다.
* 저의 단점은 일에 몰두하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몰두하였을 경우 이를 방해받았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여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화났어?’ 라는 소리를 들은 경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의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경우 저 스스로 반응에 텀을 둠으로써 예민한 반응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Q. 자신의 업무적 강점

* 새롭게 기술에 쉽게 적응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학부시절 전공과는 다른 성격인 빅데이터, VR 등에 도전해보았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히 습득하는 방법을 통해 빅데이터와 VR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공모전 수상, 인턴쉽 기회 등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T 환경에서 이러한 적응력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원동기

* 제가 만든 서비스가 많이 사용되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혜택을 주는 것이 제가 가진 목표입니다. 2016년에는 약 2천만명이 해외로 출국했고, 연간 3천만명의 사람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육상과 항공이라는 교통 분야의 IT 서비스에 강점을 지닌 아시아나IDT에서 서비스 개발을 수행한다면 제가 가진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입사 후 목표는 무엇인가?

* 육상과 항공이 통합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항공에서는 항공여객시스템이, 운송부분에서는 고속버스 통합매표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객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토록 하여 지방 사람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고속버스나 고속철도, 비행기까지 한번에 예약할 수 있는 원스탑 방식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아시아나IDT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나IDT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기업을 실현하겠다는 금호아시아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